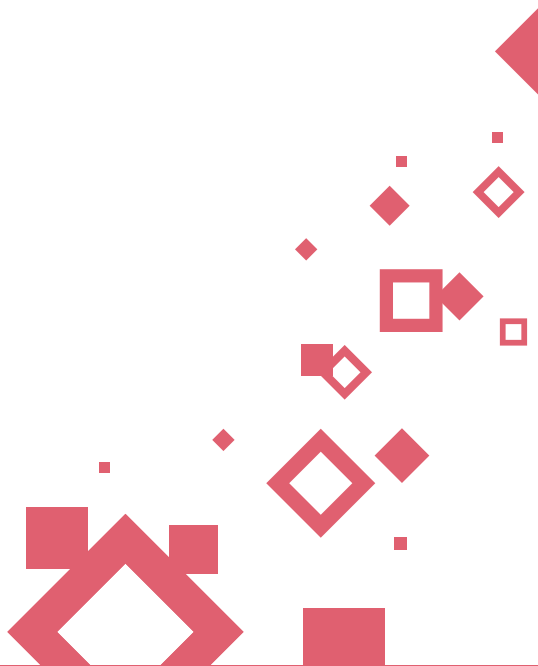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병산서원



목차

유네스코 서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01. 유네스코 세계유산	05
02. 서원의 이해	06
03. 서원의 주요기능	08
04. 동아시아 사립교육기관과 비교	14
05.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16
06.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17

안동 병산서원

01. 안동 병산서원 개요	23
02. 강학	29
03. 제향	33
04. 교류와 유식	39

안동 병산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41

01. 유네스코와 유산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

※ 근거: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 **완전성과 진정성** 개념을 충족했는지
-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보호관리계획**을 갖추었는지

※ 등재 기준,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



세계유산협약 전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한국의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 / 사액 연도	주향 인물	비고
영주 소수서원	1543년/ 1550년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사적 (1963)
함양 남계서원	1552년/ 1566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사적 (2009)
경주 옥산서원	1572년/ 1574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사적 (1967)
안동 도산서원	1574년/ 157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사적 (1969)
장성 필암서원	1590년/ 1662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사적 (1975)
달성 도동서원	1605년/ 1607년	한훤당(寒暄堂) 김공필(金宏弼) (1454~1504)	사적 (2007)
안동 병산서원	1613년/ 1863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사적 (1978)
정읍 무성서원	1615년/ 1696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사적 (1968)
논산 돈암서원	1634년/ 1660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사적 (1993)

02. 서원의 이해

서원이란?

-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
-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 선현先賢 제사,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
-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 지역 문화 선도

서원의 기원

-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 재위 712~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담당한 '여정서원'이 최초
-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 제사기능,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
-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 1130~1200가 세운 '백록동서원'은 학규,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
-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모티브

한국에서 서원 성립

-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 국학(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성 권장

-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수준 저하,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
-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된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 중국의 서원제도 주목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 건립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 확산

서원의 구성원: 사람

- 향촌 지식인집단
-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
-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
- 관련 자료: 『원장안院長案』,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등

구분	역할
원장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업무 총괄 ◉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 관리 주체 ◉ 임기는 1~2년, 대체로 연임 허용
원임院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 ◉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로도 불림 ◉ 서원 내 규찰, 재정 문제 담당 ◉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
원생院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 ◉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 ◉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

서원의 규약(規約)

- 원규院規 : 강학 · 제향 ·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
- 학규學規, 강규講規 :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
- 절목節目 :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 세칙
- 완의完議, 입의立議 :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서원의 재정

- 대체로 지역 사림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토지, 노비,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
- 사액서원에는 서적, 토지, 노비 등이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
- 관련 자료: 『전답안田畝案』, 『노비안奴婢案』,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03. 서원의 주요 기능: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강학

- 성리학 교육을 통한 후속 세대의 양성
- 개별학습인 독서,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
-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

-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
- 강학 활동은 ‘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과 ‘공식적·의례적 강학으로서 강회講會’로 구분

강학의 종류

구분	내용
거접居接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문화文會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
거재居齋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순제旬題	지방의 향교鄕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통독通讀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향사 후의 강회 講會	향사 ^{享祀} 를 지낸 후, 「백록동규 ^{白鹿洞規} 」나 「여씨향약 ^{呂氏鄉約} 」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 ^{講生} 이 강장 ^{講長} 앞에서 진강 ^{進講} 을 하는 순서로 진행. 진강을 하는 방식은 지[柱: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쪽 종이]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
----------------	---

강학 의례

구분		내용
홀기를 갖춘 공식적 의례	정음례 庭揖禮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 읍례 ^{揖禮} 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
	상읍례	큰 읍 ^揖 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강습례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 ^{陳設} :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첨배 ^{瞻拜} :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상읍 ^{相揖} :서로간 읍례를 거행함-승당 ^{升堂} :당에 오름-독규 ^{讀規} :규약을 읽음-배독 ^{拜讀} :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진강 ^{進講} -예필 ^{禮畢} 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관습적 의례	경독 敬讀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 ^{白鹿洞規} , 사물잡 ^{四勿箴} , 심잠 ^{心箴} , 경재잠 ^{敬齋箴} , 숙흥야매잠 ^{夙興夜寐箴} 을 낭독하는 것이다.
	개접례, 입접례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파접례, 후접례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귀가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수창시	수창시는 ‘회강’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제향

-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
-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 결속을 다지는 기회

제향의 종류

구분	명칭	시기
정기	춘추 향사	매년 봄·가을
	삭망례	매월 초하루, 보름
	정알례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7일

구분	명칭	시기
비정기	이안례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환안례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위안례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예성례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사액례	사액을 받을 경우
	치제	국가에서 제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는 경우



입제



성생례



집사분청



분향례



사우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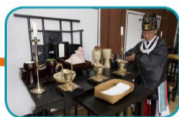
제물근봉



초헌례



중헌례



철반두



파제



향약낭독



음복례

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

교류와 유식

- 교류(交流): 서원의 구성원, 서원에 방문한 명사,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
- 유식(遊息)
 -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 『예기』, 학기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藏修: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
 -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수양 방식의 일환.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品格)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
-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
-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
-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
- 남전향약, 예안향약, 해주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
- 관련 자료: 『심원록』 등

04.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

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을 이루었다

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

	중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	일본의 시주쿠
도입 시기	7세기	16세기	17세기
설립 목적	유학 지식인 양성 → 관료 양성 관학 보조	성리학 지식인 양성 지역 기반 선현 제향	지식인 양성
교육 대상	제한 없음	지역 유생	무사, 가신 그룹
교육 학문	유학	성리학	유학,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 다양
제향	인물	주로 공자 등 성현	지역단위 선현
	의례	일부 서원만 유지	현재까지 존속
사회적 기능	국가정책 따라 변동	지역 공론 중심지 지역 교화 중심지	근대사회 전환 기여
건축	입지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등	제향인물 연고지 자연 경관 고려
	기능	강학-제향-장서	제향-강학-유식

건축	구성 요소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반지 과거합격 비석군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강당 재사 도서관
	배치 유형	서원별 개별성 강함	공통의 배치 유형 존재	단일건물 중심
	경관 구성	인위적 폐쇄적	자연친화적 개방과 관입 구현	인위적 폐쇄적
	지역 성	입식 생활 구조 의자, 화로	좌식 생활 구조 온돌, 마루의 조화	좌식 생활 구조 다다미, 화로

06.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등재 기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충족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
-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 토착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
- 활용과 기능,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
-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무형유산,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

05.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주체	사림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포	지역별 다양	군현별 1개	수도에 1개
설립목적	인성교육 선현제향 사림 활동 기반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사회적역할	지역 공론 형성 지역 문화 교류		유생 공론 형성
입지	제향 대상과 관련 교육 목적에 부합	지방 행정 중심지	수도
구성요소	사우(선현),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경각), 누각, 정자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유형	제향-강학-교류, 유식	강학-제향	강학-제향

-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
-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 관련

수려한 주변 경관

-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
-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
-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
- 특히 정자,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

‘한국의 서원’ 건축 특성

보편성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집중적으로 건립되며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
-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

보호 및 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증축,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연속유산이란

- ‘연속유산’이란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
-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입지 특성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

-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先賢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

강학공간

- 건물: 강당, 재사, 장서각, 장판각 등
-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
 - 강당: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
 - 재사: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 서재로 구성, 학생들의 기거 공간
 - 장서각, 장판각: 목판이나 도서 보관

교류와 유식공간

- 건물: 누각, 정자 등
- 누각은 누정,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표현된 건축
- 연못,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 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

기타

- 고직사, 교육시설, 하마비, 홍살문, 기념비 등
- 하마비,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
 - 고직사: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
 - 교육시설: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 전통 건축기법 토 대로 건립
 - 하마비: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
 - 홍살문: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

- 대부분의 서원은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

독자성

-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
-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
-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 건축 구조 형성

공간 구분

제향공간

- 건물: 사우, 전사청, 제기고 등
-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
-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 별도 출입문 설치
 - 사우: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
 - 전사청: 제물,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
 - 제기고: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

‘한국의 서원’ 서원별 세계유산가치

서원명	세계유산가치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로 건립된 서원 강학,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 강당과 사당, 문루가 일렬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서원 건축의 배치방식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 누마루를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 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 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규,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 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
안동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 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 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 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

안동 병산서원

01. 안동 병산서원 개요

(1) 건립

건립 배경

- 병산서원이 위치한 지역은 안동부安東府의 속현인 풍산현豊山縣으로 인근 예안현禮安縣 출신 이황李滉, 1501~1570의 영향을 받음
- 류성룡柳成龍, 1542~1607과 지역 유림이 서원 건립 주도
- 이 지역에는 이른 시기부터 서원書院, 서당書堂, 서재書齋, 정사精舍 등 건립, 병산서원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해 가능

건립 과정

- 1563년 풍산현 북쪽 1리 정도 거리에 병산서원의 전신 풍악서당豊岳書堂 건립
- 1572년 풍악서당이 길가에 있어 장수藏修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류성룡의 주도로 병산 쪽으로 이건
- 임진왜란壬辰倭亂 중 서당 건물 전소全燒
- 1605년 현재 위치에 중건
- 1607년 류성룡 사후 그의 문인들의 주도 하에 서원건립 논의 대두

회계回啓, 국왕의 재가를 받아 사액 결정

병산의 의미

- 사액이 결정된 후 철종哲宗, 재위 1849~1863이 사망하며 새로운 이름의 현판을 받지 못하고 기존의 이름인 병산屏山 사용
- 서원 남쪽의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기이한 절벽이 서로 마주보며 깊은 물을 내려다보는 기묘한 경치가 병풍과 같아 붙여진 이름

(3) 운영

병산서원 원규(院規)

- 임고서원臨臯書院 소장 문서인 『서원규범書院規範』과 『병산서원기사屏山書院記事』에서 확인
- 『서원규범』에는 임고서원, 소수서원紹修書院 등의 원규가 각각의 항목 관련 부분에 나열
- * 자세한 사항은 『병산서원 정밀실측조사 보고서(상)』, 2013 참고.

원임(院任) [원규]

- 각자 상유사上有司, 하유사下有司를 맡을 만한 사람을 천거하고, 그 이름을 한 종이에 적어 늘어놓고 권점圈點한다
- 상유사는 서원 내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고, 하유사는 미포米布의 출납과 공궤供饋, 염산斂散, 풍년일 때 쌀을 사들였다가 흉년일 때 쌀을 파는 것, 타작打作 등의 일을 주관하게 한다
- 모든 일은 반드시 원장에게 아뢴 후 행한다

- 1613년 병산서당 뒤에 존덕사尊德祠를 창건하여 서원으로서 위상 갖추

병산서원 재정 마련

- 풍악서당 시기 생원生員 권경전權景綵 등이 상소하여 학전學田 하사
- 1663년 노비안奴婢案에 풍악서당 당시 소속노비 7구, 서원 설립 이후 지방관에 의해 6차례에 걸친 속공영급屬公永給 노비 8구 기재
- 병산서원의 노비는 서원 근처에 거주하더라도 모두 신공 납부하는 공납貢納 노비로 기록이 남아있음
- 류성룡의 문인들의 부조, 지방관에 의한 지원이 있었을 것
- 관련 유물: 『전답안田畝案』, 『노비안奴婢案』 등

(2) 사액

병산서원 사액

- 1800년 정광익鄭光翊의 사액 요청 상소
- 이후 류성룡의 학통을 계승하였거나 후손인 류규柳奎, 류이좌柳台佐, 1763~1837, 정상리鄭象履, 1774~1848 등에 의해 사액 분위기 조성
- 1832년 영남 유생 이순발李恂發 주도로 1,250인 연명 상소
- 1853년 이동순李同淳, 1779~1860이 이황의 문하에서 류성룡이 적전嫡傳이었다고 하며 사액 요청 상소
- 1863년 교리 이계로李啓魯, 1828~?의 상소에 비변사備邊司의

- 하유사가 인계할 때 반드시 차정된 사람이 함께 참석하여 수를 세어 관에 보고하고, 단지 문서로만 서로 전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 원규의 일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

원임(院任)의 운영

- 초기에는 상유사, 하유사 체제 또는 도유사都有司, 재유사齎有司 체제
- 후에 원장제院長制 신설 후 원장, 유사체제로 분화
- 원장의 임기는 대체로 1~2년, 중임과 재임 허용
- 임원생 중 빠르면 10년 이내, 늦으면 10~20년 후 원장, 유사로 선임
- 대체로 안동 지역의 사림 중심으로 운영
- 17~18세기에는 유학幼學, 생원生員, 진사進士가 주로 임원을 맡았지만, 19세기에는 지방관과 관료의 비율이 높아짐
- 관련 유물: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원사(院士)[원규]

- 무릇 입원入院은 유생이 모두 모여 각자 들어올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연소하고 학문에 뜻이 있으며 도리를 대함을 조금은 알고 오점汚點이 없어 장래가 있는 사람을 취하여 그 이름을 늘어놓고 권점하여 받아들인다
- 무릇 무리지어 살 때는 용모를 바르게 하고 삼가 예절을 지키며 의리를 강마講磨하여 여택麗澤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 장상長上의 우열을 품평하거나 다른 사람의 문자文字를 찬양하거나 혈뜬어서는 안 되고, 군읍郡邑의 정사政事나 고을의 인물에 대해서는 선한 것을 칭찬하되 나쁜 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

* 원규의 일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

원사(院士)의 운영

- 입원한 유생은 항상 5인을 이바지한다 ... 수년 후 미곡의 수가 많아지고 유생의 수가 평소보다 많이 모이면 임시로 결정하여 비록 5명이 넘더라도 수를 헤아려 배급을 더하여도 무방하다
- 반찬값으로 1년에 통용하는 잡곡이 3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상, 하유사 및 다른 빈객으로서 무시로 출입하는 사람의 경우는 유생에게 배급되는 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여러 유생 중 만일 독서에 힘쓰지 않고 날마다 출입하며 직접 고기잡이와 사냥을 하거나 혹 제멋대로 잡기雜技를 일삼는 자가 있으면, 가벼운 경우는 대면하여 꾸짖고 중한 경우는 쫓아낸다

* 원규의 일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

02. 강학

건물

입교당(立教堂)

- 목적: 서원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
- 1921년 중수
- 입교立教: 유생들이 배워야 할 성현의 가르침인 오륜五倫을 바르게 세운다는 의미
-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夾室型
- 동쪽에 서원의 원장이 기거하는 명성재明誠齋와 서쪽에 교무실 기능을 담당하는 경의재敬義齋로 구성

입교당 관련 유물

병산서원 현판

- 1863년 사액 받을 때의 편액
- 병산屏山: 서원 앞의 산이 병풍을 두르듯이 펼쳐져 있다는 것에서 유래
- 곡강曲江 이호李瑚가 씀

입교당 현판

- 류성룡의 제자인 이호李瑚, 1553~?의 글씨

병산서원존덕사복향기(屏山尊德祠復享記)

- 1620년 여강서원廬江書院에 모셨던 류성룡 위패를 1629년 병산서원 존덕사로 옮겨 오게 된 전말 기록

(4) 병산서원의 공간 구성

병산서원의 입지

-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
- 앞이 낮고 뒤로 가면서 높아지는 경사지에 입지
- 맞은편에 병산과 낙동강을 바라봄
- 주산인 화산花山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 풍산류씨豐山柳氏 집성촌인 하회마을이 위치하고, 동쪽에 화산을 등지고 병산서원 위치
- 산수가 뛰어나면서도 한적한 곳에 위치

건물배치도

- 완만한 경사지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
- 묘우廟宇를 강당의 동쪽에 치우쳐 배치하는 것을 중요시하여 사당이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음
- 노비들이 기거하는 고직사庫直舍가 일반적으로 위계가 낮은 서쪽이 아닌 동쪽에 위치
- 만대루晩對樓를 통해 한국 서원 누마루 건축의 탁월성을 보여줌



동직재(動直齋)·정허재(靜虛齋)

- 목적: 학생들의 기숙과 개인 학습 병행
- 동재는 동직재, 서재는 정허재
-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맞배지붕 건물
- 작은 2개의 방과 가운데 1칸 마루로 구성
- 강당 쪽 작은 방은 유사^{有司}의 독방이거나 서적을 보관하는 장서실
- 2칸 규모의 큰 방은 학생들이 단체로 기거하는 방
- 좌고우저^{左高右低}의 원리에 따라 동재에는 상급생, 서재에는 하급생이 기거

동직재·정허재 관련 유물

동직재 현판

- 동직^{動直}: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통서^{通書}』에 나오는 구절, 경^敬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여 사욕이 없는 경지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뜻 내재
- 이호의 글씨

정허재 현판

- 정허^{靜虛}: 주돈이의 '욕심이 없으면 고요할 때는 텅 비고, 움직일 때는 곧게 된다'는 구절 인용, 성인이 되는 것은 결국 마음 수양을 통해 사욕이 없는 경지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의미
- 이호의 글씨

장서실(藏書室) 현판

- 정허재의 우측 마루방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 현재 병산서원 입교당에 걸려있음
- 이준^{李俊}, 1560~1635 작성

명성재(明誠齋) 현판

- 명성^{明誠}: 『중용』의 '성^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性이라 이른다'는 구절에서 유래
- 입교당 동쪽 방의 현판

경의재(經義齋) 현판

- 경의^{敬義}: 『주역』의 '군자는 경^敬으로써 내면을 곧게 하고 의^義로써 외면을 바르게 한다'는 구절에서 유래
- 입교당 서쪽 방의 현판

존덕사향사집사분정(1)

- 강당 북쪽 벽면에 걸린 현판
- 존덕사 향사시 집사분정판

학 생	관 세 위	척 기	장 찬	공 반	사 준	전 작	봉 작	봉 로	봉 향	찬 인	알 자	찬 자	축 현 관	종 현 관	아 현 관	초 현 관
--------	-------------	--------	--------	--------	--------	--------	--------	--------	--------	--------	--------	--------	-------------	-------------	-------------	-------------

존덕사향사집사분정(2)

- 강당 북쪽 벽면에 걸린 현판
- 존덕사 종향위 집사분정판
- 종향위의 집사분정판이 별도로 있으며, 분정판의 구성요소도 다름

학 생	척 기	장 찬	공 반	사 준	전 작	봉 작	봉 로	봉 향	진 설	현 관
--------	--------	--------	--------	--------	--------	--------	--------	--------	--------	--------

병산서원 통독(通讀)

- 1781년 「신축통독안辛丑通讀案」에는 『대학大學』 통독에 관한 자세한 내용 기재되어 있음
- 상읍례相揖禮를 하고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읽음
- 존덕사 배알拜謁
- 입교당에 좌석 후 『대학』을 차례대로 읽고 경의經義 강론 후 의견 교환

03. 제향

인물

류성룡(柳成龍, 1542~1607)

- 자는 이견而見, 호는 서애西厓, 시호는 문충文忠
- 서애는 류성룡이 살고 있던 하회마을 서쪽 강가의 작은언덕이라는 뜻을 담아 스스로 호로 붙인 것
- 저서: 『서애집西厓集』, 『징비록懲毖錄』, 『신증록愼終錄』 등



『서애집』 연보

류성룡 행장(行狀),
『우복집(愚伏集)』 권20

장판각(藏板閣)

- 서원에서 생산된 목판 및 고문서 등이 보관된 곳
- 습기를 피하기 위해 정면 모두 판문板門을 달고, 불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건물과 거리를 두어 독립적 공간 마련
-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보관되던 자료들은 보존관리를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

장판각 관련 유물

장판각 현판

- 곡강 이호가 씀

교육 강학

- 17세기 중반 이후 대부분의 서원에서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었지만, 병산서원은 18세기 후반까지 강학 전통 유지
- 강학을 통한 선비 양성이 서원을 세운 근본임을 강조
-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여러 유생을 불러 모아 사서육경四書六經 등 여러 책을 주야로 강습
- 통독通讀, 거재居齋, 고강考講이라는 유형의 강학 활동 전개
- 『주서朱書』, 『심경心經』과 같은 성리서性理書와 『춘추春秋』 등의 역사서 학습
- 서책별 고강考講한 유생의 성적을 순통純通, 통通, 약畧, 조粗의 네 등급으로 평가

전사청(典祀廳)

- 목적: 제향과 관련된 제기 보관, 제향 준비
- 사당과 한 울타리 안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병산서원의 경우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

전사청 관련 유물

전사청 현판

- 곡강 이호가 씀

의례

병산서원 향사(享祀)

- 매년 춘추 음력 3월, 9월 상정일(上丁日)에 시행
 - * 상정일: 음력으로 매달 첫째 드는 정(丁)의 날
- 행사 시작은 종래 축시(丑時, 오전 1시~3시, 서원재단에서 설립한 풍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례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

병산서원 향사 준비

① 제관천망(祭官薦望)

- 향사 약 한 달 전 운영위원회에서 헌관을 비롯하여 축과 집례 등 6집사를 미리 선임, 망기 발송
- 초헌관은 원장(수임)이 되고 아헌관·종헌관·분헌관 등 헌관 3인은 유림의 지도자로 덕망 있는 인사 중 선임

류진(柳軫, 1582~1635)

- 자는 계화(季華), 호는 수암(修巖)
- 류성룡의 아들
- 저서: 『수암집(修巖集)』



류진 모갈명,
『입재집(立齋集)』 권37



류진 행장, 『목재집(木齋集)』 권8

건물

존덕사(尊德祠)

- 목적: 제향인물인 서애 류성룡과 수암 류진의 위패 봉안
- 1613년 정경세(鄭經世, 1563~1633) 등에 의해 건립
- 1614년 류성룡의 위판 봉안
-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
- 사우의 삼문에 태극(太極), 기둥에는 팔괘(八卦)가 그려짐

존덕사 관련 유물

존덕사 현판

- 존덕(尊德): 류성룡의 학덕을 존모한다는 의미
- 1614년 문인들에 의해 위패가 모셔진 후, 1620년 여강서원으로 옮겼다가, 1629년 다시 봉안
- 곡강 이호가 씀

② 제수(祭需) 구입

- 제수로 사용할 것은 크고 깨끗한 것을 구입하며, 가격 흥정을 하지 않음
- 구입한 제수는 병산서원 옆에 위치한 주소_{廚所}로 옮김
- 주소에서 제수 다듬기, 제관들의 식사 준비, 제수의 검수와 근봉_{謹封}이 이루어짐

③ 제주(祭酒) 담그기

- 서애 종택인 충효당_{忠孝堂}의 종부가 담근 가용주 사용
- 술을 담근 뒤 술이 가라앉으면 위의 맑은 술만 걸러냄

④ 입재(入齋)

- 향사 전일 입재, 유사들은 향사 2일 전부터 향사 준비
- 유사는 아침 6시 존덕사 묘정에 올라 사당에 들어가 분향례를 올림
- 제관들은 입재일 오후 3시까지 서원 도착. 정문(복례문) 밖에서 예복을 갖추
- 제관들은 시도기_{時到記}에 입재 등록
- * 시도기: 일종의 방명록

⑤ 알묘례

- 입재한 제관은 알묘를 행함

⑥ 축문수축(祝文修祝)

- 알묘가 끝나면 초헌관을 모시고 존덕사 월대 위 서단에서 축문을 수축

⑦ 집사분정(執事分定)

- 7시경 입교당에 모여 제관 분정하고 독약(백독동규와 향약)을 행함

⑧ 제물봉치(祭物奉置)

- 정해진 향사물목단자와 대조하며 제수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는 절차
- 저녁 9시경 초헌관 집례, 재유사가 주사의 대청에 올라 상음례 및 좌정
- 집례가 물목단자를 하나씩 부르며, 고지기가 각 품목별로 수량 확인 후 용기에 담아 근봉
- 근봉 이후에는 향사를 올릴 때까지 볼 수 없음

⑨ 제물진설(祭物陳設)

- 사당에 옮겨둔 제물은 향사 당일 새벽 제기에 담아 진설

병산서원 향사 절차

① 취위(就位)

- 향사 당일 6시 30분경 제관들은 예복으로 의관 정제, 입교당 대청에 개좌
- 동입동출_{東入東出} 원칙

② 분향례(焚香禮)

-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신위전에서 끓여앉아 향을 세 번 피운 뒤 자리로 돌아옴

⑧ 망예(望瘞)

- 제향을 마치고 축문을 땅에 묻는 의례

병산서원 향사의 특징

- 서원 재단이 설립한 풍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향사를 지냄
- 향사 시 묘우의 출입은 동입동출을 따르지만, 헌관들이 들어갈 때는 중문으로 들어가고 동문으로 나오는 것이 다름
- 제물봉치 의례가 아주 엄숙하게 잘 전승되어 오고 있음
- 병산서원 향사에는 전폐례가 없음

04. 교류와 유식

만대루(晩對樓)

-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지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팔작 지붕 누각
- 내, 외부 사람들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기능
- 회합會合과 관련된 많은 자료 보존
- 국내 서원 중 가장 큰 규모의 누마루
- 만대晩對: 당나라 두보의 시 백제성루白帝城樓의 ‘푸른 절벽은 저물녘에 대할 만하네’라는 구절에서 인용

광명지(光明池)

- 서원 유생들의 유식을 위해 조성된 인공 연못

- 헌관은 묘 출입 시 중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동문으로 나옴
-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奠幣禮는 없음

③ 초헌례(初獻禮)

-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
- 축이 동쪽을 향하여 앉아 축문을 읽음, 이때 모든 제관들은 국궁國弓

④ 아헌례(亞獻禮)

- 신위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
- 의례절차는 초헌례와 같지만 축문 낭독이 없음

⑤ 종헌례(終獻禮) · 분헌례(分獻禮)

- 신위께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
- 분헌관은 종향 위에 분향하고 술잔을 올림

⑥ 음복례(飲福禮)

-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를 음복하는 의례

⑦ 철변두(撤籩豆)

-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두는 의례
- 축이 사당에 들어가 변과 두를 하나씩 조금 옮기는 것으로 대신함

- 광명光明: 주희朱熹의 관서유감觀書有感 시의 '천광운영공배회 天光雲影共徘徊'에서 인용

복례문(復禮門)

- 서원의 주요 건물과 외부를 나누는 진입문
- 정면 3칸, 측면 1칸
- 복례復禮: 『논어』에서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을 인용, 사람마다 욕망과 탐욕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禮로써 자신을 절제하여 인仁을 이룩하라는 의미

안동 병산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사림의 공론장으로 기능한 서원

- 1613년 건립된 서원
-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제자, 후손, 안동 지역 사림에 의해 건립
- 조선시대 최초로 만인소를 작성하는 공론장으로서 역할 적 극적 실천
- 지역 공론 수합하고 조정한 전반적인 내용을 입증하는 통문 자료 구비
- 만대루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성리학적 자연관 확인하는 건축공간을 대표, 누마루 형식의 완성도 높은 성취
- 낙동강과 산지의 조화를 통하여 자연 경관적 요소를 탁월하게 구현

안동 병산서원의 특징

- 병산서원의 교육적 지향을 보여주는 강학 전통과 1946년 서원 재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병산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풍산중학교, 풍산고등학교
- 조선후기 영남 향촌 유림들의 유일한 정치활동인 영남유소嶺南儒疎에서 병산서원이 중요한 역할, 예안·안동 일대의 수원首院으로서 공론의 중심지
- 풍산 류씨 집성촌이자 배향인물인 류성룡의 고향인 하회마을과 인접

- 병산과 낙동강이 펼쳐지는 주변 풍광을 끌어안음으로써 서원과 자연경관을 하나로 합쳐 극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최대 규모의 누마루인 만대루
- 내삼문 초석에 새겨져 있는 팔괘^{八卦}는 류성룡의 일대기를 상징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의 일부 요소로 포함

MEMO



본 사업은 문화재청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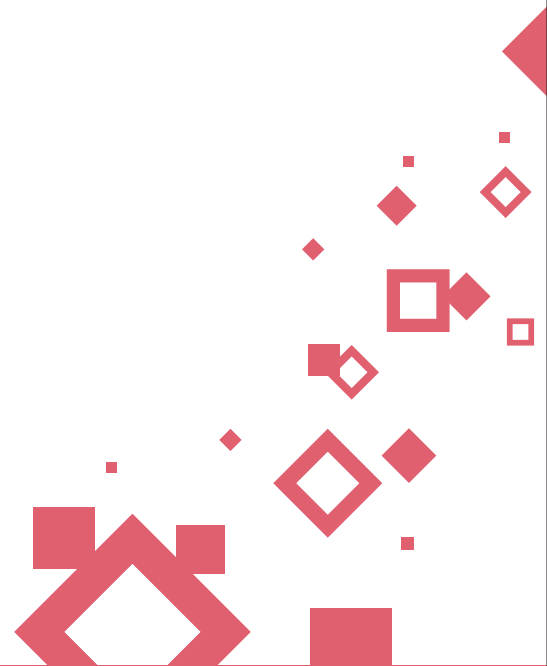


본 사업은 문화재청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병산서원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전담해설사' 교육 교재
파일로 연결됩니다.

